

회춘한 김우병, 최장수 선수가 꿈!

올시즌 연대를 41%...선발급 강자
46세 작은 체구볼구 전성기급 활약

1994년 출범한 경륜은 오는 10월15일 이번 24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이 기간 벨로드롬을 경험한 선수는 1기부터 지난해 훈련원을 졸업한 23기까지 무려 1100여 명에 달한다. 현재 활약 중인 현역선수 538명 중 1기 원년 멤버는 7명뿐이다. 2기는 8명, 3기는 4명만이 남아있다.

아마시절 태극마크를 달고 국내외를 주름잡던 국가대표 출신들을 비롯해, 경륜 원년 '달리는 보중수표'로 꼽히던 은종진(1기, 은퇴), '경륜 황제' 조호성(11기, 은퇴) 등은 시대를 풍미한 경륜의 레전드들이다. 영원할 것 같던 '은류스타'들도 결국 나이에 따른 체력적 열세와 부상 후유증, 개인사 등을 이유로 벨로드롬을 떠났다.

하지만 이런 세월이 무색할만큼 데뷔 초부터 현재까지 꾸준한 활약을 펼치는 이가 있다. 3기 김우병(B1, 46세, 일산팀)이다. 그는 운동선수치고 작은 체형인 168cm 키에 몸무게 70kg임에도 불구하고 선형 전법을 내세워 알토란같은 성적을 올렸다. 선발급에서는 강자, 우수급에서는 복병으로 활약을 펼쳤다.

김우병은 데뷔 초인 1996년에는 승률이 11%, 연대율은 22%였다. 성적이 가장 좋았던 2012~13년에는 승률 27%,



김우병(왼쪽 첫 번째)은 지난 4월 열린 선발급 훈련지 대항전 결승전에서 동서울·광명·일산팀(북부그룹)으로 출전에 우승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연대율 45%를 기록했다. 올시즌 승률 19%, 연대율 41%와 비교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성적표다. 이처럼 꾸준함은 그가 아직까지 현역선수들 이어갈 수 있는 비결로 꼽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기 내용이다. 경륜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선형 같은 자력승부에서 마크, 투입 같은 기교파로 변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우병은 운동선수로는 환갑을 넘어선 나이에든 불구하고 자력승부를 통한 입상들이

50%에 달한다. 도움 없이 순수 본인의 힘으로 달성한 성적이기엔 더욱 값지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비결은 몸에 해로운 일을 삼가고 하루도 거르지 않는 꾸준한 연습이다. 김우병은 나이에 따라 훈련방법이나 체력 관리를 달리하는 노하우와 경륜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습관처럼 배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허은희(1기, B1), 장보규(1기, A2)에 못지않은 장수 선수로 남는 것이 김우병의 최종 목표다.

경륜 원년전문가로 오랫동안 김우병을 지켜본 '최강경륜'의 박창현 발행인은 "경륜은 개인의 능력 못지않게 승패에 있어 연대적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우병은 흔한 인맥조차도 없다. 이런 불리함까지 극복하며 늘 한결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놀랍고, 이는 타의 귀감이 되기 충분될 정도로 화려하진 않아도 벨로드롬에 꼭 필요한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륜·경정 고객 건전지킴이 발대식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 광명 스피드 대회회의실에서 '2018년 경륜·경정 고객 건전지킴이(고객 보안관) 발대식'을 가졌다. 고객 건전지킴이는 경륜경정 사업의 건전화와 고객 직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도출하는 고객참여형 건전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위촉된 고객 건전지킴이는 총 11명으로 해당 분야 유사활동 경험자 및 경륜경정 사업에 관심이 높은 고객들이 선정됐다.

추석맞이 특별경정 19~21일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추석맞이 특별경정을 오는 19~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맞이 특별경정은 고객들의 흥미를 제고하기 위해 88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 이벤트 경주를 편성한다. 19일에는 다시보는 올림픽이라는 타이틀로 다른 종목 선수출신 현역 경정 선수, 20일에는 88년도 제외한 역대 올림픽 개최년도 출생 경정 선수들이 출전하는 올림픽동이전, 21일에는 88년도 출생 경정선수이 대결하는 호돌이 레이스를 편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경륜경정 건전문화포스터 등 공모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2018 경륜경정 건전문화포스터 및 CREATIVE IMAGE'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부문은 건전문화포스터와 CREATIVE IMAGE 2개 부문이다. 건전문화포스터는 사행성 예방과 구매상환 준수 관련 내용을, CREATIVE IMAGE는 건전레저스포츠로서의 경륜경정사업을 창의적이고 박진감 넘치는 장면으로 표현한 작품(사진, 드로잉, 일러스트, 캘리그래피 등)이면 된다.

모터 기력 변화, 경정 승부의 새 변수

132번·42번 모터 최근 승률 급상승
"실린더 부분 등 부품교체때 기력 상승"

경정에 있어서 모터는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탑승 선수의 기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모터 기력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는 제어무리 날고 가는 선수와 하더라도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경정이다. 모터는 기계인 만큼 대부분 기력 변화 없이 일정함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착순점이나 연대를 같은 성적만큼 성능을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비상태, 부품교체, 수온의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눈에 띄는 기력 변화를 보이는 모터도 있다.

지난 36회차에 출전한 132번 모터가 대표적이다. 평균 착순점 4.3점으로 중하위권 성적을 내고 있는 모터이지만 최근의 활약상은 웬만한 상급 모터 못지않게 좋다. 36회차에서는 김민길에게 2승을 안겨줬고, 전 회차인 35회차에서는 한진에게 3연승을 안기며 부진에서 벗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줬다. 최근 10회 출전동안 무려 7승을 거둬

정도로 그동안의 성적을 무색케 할 정도로 활약을 보이고 있다.

42번 모터도 최근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터이다. 36회차에 김동민이 탑승하며 4연속 입상을 성공시켜 착순점을 5.59까지 끌어올렸다. 착순점 4.47의 110번 모터도 전반기 처음 등장했을 때 보다는 확실하 나아진 기력이다.

이와는 반대로 좋은 기세를 보이다 최근 하락세로 돌아선 모터들도 있다. 36회차에서 서화모 선수가 탑승했던 32번 모터는 4월 데뷔후 5월30일까지 7승을 거두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6월부터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진함을 보이고 있다. 착순점 6.31이라는 준수한 성

적의 94번 모터도 6월20일까지 9승을 올렸으나 그 후로 단 2승에 그치며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정 전문가들은 "모터의 경우 정비에 따라 기력 변화가 올 수 있고 특히, 주요 부품이나 전기 계통, 실린더 부분의 부품 교체시 기력이 상승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폭염에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모터들이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기력이 살아나는 모터가 있을 수도 있다"며, "모터의 착순점이나 연대율에 의존해 모터 성능을 판단하는 것 보다는 최근 어떤 선수가 탑승해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성적 변화를 꼼꼼히 따져가며 모터 성능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NC 4~5점대-KIA 2~3점대" 1순위

야구 스페셜플러스 8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는 12일 열리는 2018시즌 KBO리그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플러스 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야구팬 48.74%는 NC-KIA(3경기)전에서 홈팀 NC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11일 밝혔다.

KIA의 승리 예상은 36.78%를 차지했고, 양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4.48%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NC(4~5점)-KIA(2~3점)이 5.12%로 최다 투표율을 기록했고, 뒤이어 NC(6~7점)-KIA(2~3점)와 NC(6~7점)-KIA(4~5점)은 각각 5.10%와 4.78%로 집계됐다.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함께 리그 순위의 우위를 갖고 있는 KIA지만, 양팀의 상대전적을 들여다보면 의외성이 있다. NC가 6승5패로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더불어 NC는 창원마산야구장에서 펼쳐진 6경기에서도 4승2패를 기록해 안방에서 KIA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NC가 KIA를 상대로 믿어 볼만한 것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이다. NC는 지난 9월7일 펼쳐진 LG와의 경기에서 11-1을 대승을 거뒀다. 이 경기에서 선발 구창모는 삼진 7개를 포함한 호투를 보여줬고, 타선은 15안타를 기록해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다. 이후 NC는 롯데를 상대로 8일과 9일 경기까지 각각 7-1과 11-3으로 승리해 3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로써 NC는 최근 10경기에서도 6승4패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게 됐다.

이어 삼성-한화(1경기)전에서는 삼성 승리 예상(42.39%)과 한화 승리 예상(41.08%)이 근소한 차이를 보여 치열한 접전 승부가 예상된다.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은 16.51%로 가장 낮게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삼성(2~3점)-한화(4~5점)이 6.12%로 1순위를 차지했다.

롯데-두산(2경기)전에서는 롯데 승리 예상(49.98%), 두산 승리 예상(34.23%), 양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5.75%)의 순으로 집계됐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롯데(6~7점)-두산(4~5점)이 6.56%로 최다를 기록했다.

"박상현, KPGA 신한동해오픈 언더파" 70%

골프 스페셜 26회차 중간집계

국내 골프팬들은 'KPGA 신한동해오픈' 1라운드에서 박상현의 언더파 가능성을 가장 높게 내다봤다.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오는 13일(목)에 베이베스트청라GC에서 열리는 'KPGA 신한동해오픈'을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26회차에서 전체 참가자의 69.93%가 1번 선수 박상현의 언더파 활약을 예상했다고 밝혔다.

2번 맹동섭이 59.34%로 뒤를 이었고, 7번 문도엽이 58.65%의 언더파 투표율을 기록했다. 또 3번 이형준과 5번 권성열, 6번 문경준이 각각 55.49%, 54.02%, 52.48%로 과반수 투표율을 넘겼다. 반면 49.36%에 그친 4번 김태우는 이번 회차에서 유일하게 과반수 이하의 언더파 투표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1라운드를 치를 것으로 집계됐다. 지정 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는 박상현(31.67%)을 비롯해, 7명의 대상선수가 모두 1~2언더파를 기록했다.

골프토토 스페셜 게임은 지정된 5명 혹은 7명 프로골퍼의 1라운드 타수대를 맞히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타수대는 5언더 이하, 3~4언더, 1~2언더, 0(이븐), 1~2오버, 3오버 이상 등 총 6개 구간으로 구성되며, 1라운드 최종 타수대를 모두 맞힌 사람에게 해당 회차의 배당률과 배팅금액을 곱한 적중상금이 지급된다.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토토 상식영역' 이벤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12일 자정까지 스포츠주최를 맞이하는 '토토 상식영역'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토토 상식영역' 이벤트는 스포츠토토 공식 페이스북 내 페이지를 방문해 주어진 상황에 대한 영상을 확인하고, 이 퀴즈에 맞는 정답을 맞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상을 살펴보면 축구 경기 중 페널티킥 상황에서 골대를 맞고 나온 공을 키커가 다시 차서 골대로 집어넣는 장면이 나오며, 다음 상황에 알맞은 판정을 묻는 퀴즈가 주어진다. 보기는 '키커 경고', '다시 차기', '골', '노 골' 등 4개 항목이며, 이 상황에 맞는 판정이라고 생각하는 답안을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달면 참여가 완료된다.

이번 이벤트에 참여한 팬들 중 정답을 맞힌 2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를 구매할 수 있는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추첨 후에 댓글을 통해 개별 공지한다.